한국어 맞춤법 및 문법

최영환
(경인교육대학교)

1. 문법의 개념과 문법지도

문법의 개념은 국어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언어관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문법지도에 대한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의미에서 문법은 언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이나 언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문법지도는 자연히 학습자의 언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반면에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문법은 표현과 이해를 가능하게 해 주는, 언어사용자들의 머리 속에 내재된 체계이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 문법지도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에 내재된 체계를 신장시키고 계발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현대적인 문법 개념이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인간의 머리 속에 있는 문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쉽게 밝혀내지는 못하고 있다. 개인적인 성찰이나 상호 비교를 통해 국어의 문법을 어느 정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문법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 실제로 국어의 용법(usage)과 국어의 사용(use)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하는 것이다. 국어의 용법은 사용을 제한하고, 국어의 사용은 언어사용자들의 합의에 의해 용법을 변화시킨다. 따라서 문법지도에서 문법의 개념을 어느 하나에만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모어 화자의 경우 어느 정도 국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공식 교육 기관에 들어가게 되므로, 문법지도는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언어의 문법은 하나의 통일체라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문법은 모든 언어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마다, 연령에 따라, 교육정도에 따라 다르게 내재된다.

모어 사용자가 공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에 내재하는 문법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인 기초 단계의 문법만으로는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의식적 문법은 잘못된 국어사용법을 교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인의 문법 편차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는데 중요하다. 동일한 언어권에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개인별로 개인어 문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공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통해 일반 문법으로 대치되어야 한다.

문법 지식은 고등 사고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경우에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어에 대하여 가르친다는 것이 전문용어를 사용하여 가르친다는 의

미는 아니다. 국어사용 환경에 노출시켜서 자연스럽게 국어를 학습하도록 하지 않는 한 이미 문법지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교육기관에 처음 들어가는 학습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국어가 어떤 규범에 의해 제한되고,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이때부터 이미 국어에 대한 교육은 시작되는 것이다.

발음의 교정에서부터 문장 구성 및 담화 상황의 적절성에 이르기까지 학습자들은 이미 국어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국어교육에서 '문법'은 내용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문화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어를 설명하는 국어(meta language)가 전문적인 언어학적 용어인가 일상 국어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국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이 아니라 표현과 이해에 대한 설명 중 일부는 이미 문법지도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어의 음운변동 현상을 설명할 때 언어학적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는가 일상적인 국어로 변동 현상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문법지도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음운변동 현상에 대해 설명을 시작할 때 문법지도가 이루어진다. 즉 문법지도는 형식에 관계없이 생각되어야 한다. 문법지도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되는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문법지도에 대한 편견도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문법지도를 논할 때 독립과목으로서의 '문법'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오류를 범한다. 물론 오래 전부터 문법은 국어교과의 과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문법지도는 과목으로서의 독립 여부와 관계가 없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표현·이해의 언어활동에서 필요에 따라 제시되는 문법적 설명이 바로 문법지도이다. 이들 언어활동에서 전적으로 국어에 대한 설명이 배제될 수는 없으므로 문법이 과목으로의 독립 여부와 관계없이 문법이 지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어에 대하여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 과목으로의 독립 여부는 지도의 방법상의 문제일 뿐이다.

2. 문법 지식의 중요성

국어교육은 국어를 매개로 하여 표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국어과를 다른 교과와 구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것으로, 우리 나라 교육과정이나 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에도 궁극적인 목표로 반영되어 있다. 이것을 국어사용 능력이라고 한다. 국어사용 능력이란 현상으로서의 말과 글을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국어 형식과 의미의 적절성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담화 양식을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능력을 포괄한다.

문법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는 가르치는 내용이 적절한 것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된 국어 지식의 범주가 명확하지 못하고,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구성 방식 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적절한 언어 직관을 제공하거나 국

어사용 능력에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이나 진술을 제공하지 못한다. 사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국어 지식은 국어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체계적인 기술이나 국어 사용자가 지켜야 할 규범이었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한 국어 지식 지도는 자연히 학습자들이 사용하는 국어의 가치를 판단하고 제한하는 역할을 했다.

현대적 의미에서 국어 지식의 지도는 지도 목표를 인지적 지식(cognitive knowledge)으로만 설정하지 않는다. 국어 지식의 지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국어에 대한 인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실제로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을 국어 수행적 지식(performative knowledge)이라고 할 수 있다. 국어 수행적 지식은 반드시 인지적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국어 지식의 지도는 모어 화자들이 이미 갖고 있는 인지적인 지식을 수정 보완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국어 수행적 지식을 발달시키고, 그 결과 국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어 지식 지도의 최종 목표가 된다.

국어의 규칙을 문법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언어의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기술 및 국어 인지 과정의 본질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어 수행 능력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어에 대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제시하려는 것이다. 전자는 학문 문법(scientific grammar)이라 하고, 후자는 교육 문법(pedagogical grammar)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문법과 학문문법의 구별은 그 목적이 다를 뿐 기술의 기반은 같다고 본다. 교육문법과 학문문법이 다른 점이 있다면, 학문문법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학습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새로운 체계로 기술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문법은 학문문법의 연구 결과인 국어학적 지식이나 국어 능력에 대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가 국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 사용에 숙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개념을 정의하고, 도표를 만들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학문문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교육문법으로 전이된다고 생각한다.

제1단계 : 학문문법의 결과 중 국어교육에 잠재적으로 유용한 자질 추출
제2단계 : 국어교육에서 지도할 문법의 구조 추출.
제3단계 : (제2단계를 기초로) 교재 구성.

그러나 위와 같은 단계 설정이 외면상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이지만 실제 실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학문문법과 교육문법은 이론과 응용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둘은 국어에 대하여 연구하는 목적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술하는 대상 '국어'도 다르며, 기술한 결과를 수용하는 사람들도 다르다. 대상과 수용자가 다르다는 것은 목적의 차이와 함께 기

술되는 문법의 실체를 변화시킨다.

교육문법은 학문문법의 일부가 아니다. 교육언어학에 대하여 논의할 때, 학문문법의 분석 결과를 선택, 배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국어학 이론에 의거한 학문문법의 연구 결과는 교육문법에 원용될 수 있다. 그러나 학문문법의 연구 결과가 교육문법에 모두 타당하거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문문법은 교육문법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국어학자는 국어지식 지도나 국어교육과 무관한 사람이므로, 그들의 연구 결과가 국어 지식 지도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1)]

학문문법의 전이 단계 설정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문문법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학문문법은 어떤 하나의 실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학의 연구 결과를 총칭하는 것이다. 국어학은 관점과 목적에 따라 국어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고, 기술 모델도 다르며, 강조점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교육문법이 그 중 어떤 국어학의 기술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교육문법으로 체계화할 것인가 선택할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법은 언제나 당대 국어학의 지배적인 경향에 따라 바뀌어 왔으며, 그로 인해 교육문법이라는 것 자체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학문문법과 교육문법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학문문법이 교육문법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서의 도움일 뿐 교육문법의 독자성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3. 문법 교육의 방향

문법 교육은 세 가지 목표와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① 규범적 언어교육
② 기술적 언어교육
③ 생산적 언어교육

규범적 언어교육은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국어사용 유형 중 잘못된 것을 올바른 것으로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적 언어교육은 국어가 작용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미 습득한 언어활동 기능을 변경시키려는 시도와는 관계가 없다고 한다. 기술적 언어교육은 학습자의 나이와 경험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첫째 단계는 모어의 작용, 둘째 단계는 특정 언어의 작용, 셋째 단계는 일반 언어의 작용에 대한 것이다. 각 단계는 학교에서 적절한 시점에 시작할 수 있고, 한번 시작하면 지속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산적 언어교육은 학

1. 1) 이것은 마치 물리학자와 물리교육의 관계, 음악가와 음악교육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습자가 이미 습득한 국어사용 유형을 다른 것으로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학습자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적절한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기술적 언어교육 내용 즉, 문법 지식이 규범적 언어교육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선 이론이 없다. 국어를 사용하는데 통달하게 되면 국어 체계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국어 체계를 많이 습득하게 되면 국어의 사용 폭이 더 넓어지게 된다. 이 둘은 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함께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 체계에 대한 교육인 기술적 언어교육은 이러한 과정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문제는 생산적 언어교육에도 문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다. 국어 지식을 규범적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국어지식 지도가 생산적 언어교육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국어지식 지도는 그 역할이 왜곡되고 축소되어 왔다.

생산적 국어사용 혹은 창조적 국어사용은 국어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이다. '생산적' 혹은 '창조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어사용에서 단순히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만을 '생산적'이라고 한다면 국어교육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어사용에서 말하는 '생산적(창조적)'이라는 말은 사회적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여 새로운 언어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맥락 독립적인 새로운 문장의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서 사용된 적은 없으나 그 맥락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국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맥락에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국어를 생산적으로,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은 국어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얻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효율성은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 인간의 인지적 능력에 맞게 주어진 인지적 문법(cognitive grammar)은 귀납적으로 얻은 언어 경험의 결과와 조화를 이루어 국어 수행적 문법(performative grammar)을 형성하게 되므로 생산적인 국어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알렌이 제시한 현상의 움직임에 대한 예측 능력과 방대한 자료에 대한 통제력은 바로 인지적 문법을 기반으로 한 국어수행적 문법이다.

4. 문법 교육의 방법

문법 교육에는 극단적인 연역적 접근 방법과 귀납적 접근 방법의 대립이 있고, 실제 지도에서는 이 둘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과거의 국어 지식 지도에서는 연역적 방법을 선호하였고, 현재는 탐구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귀납적 방법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국어 지식 지도의 방법은 이론에 따라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언어이론과 교육문법은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국어 지식 지도는 교육언어학의 이론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지도 방법의 선택 역시 교육언어학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역과 귀납의 대립은 단순히 문법 규칙을 설명하는 시기의 차이가 아니라 국어 지식 지도의 방법 전반에 걸쳐 차이가 있다. 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본래 귀납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귀납적인 방법으로 문법을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국어 지식 지도에 탐구학습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부분적인 타당성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지도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인은 '학습자'이다.

학습자의 나이와 문식 능력 및 선행 국어 경험은 국어 지식 지도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습자의 나이는 학습자의 인지 능력의 발달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역적 설명의 이해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며, 학습자의 문식 능력은 설명의 기술 방법이나 귀납적 자료의 제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학습자의 선행 국어 경험은 연역적 설명의 기초 지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학습은 본래 귀납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술과 설명이 주어지면 학습이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지식 지도는 학습자 변인을 철저하게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자료를 학습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학습 전략과 가설을 실험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는 언어사용 능력이 신장된다.

국어 지식 지도의 방법을 결정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변인은 지도 내용이다. 어떤 항목을 지도하는가에 따라 지도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국어 지식 항목별로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연구해야 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어 지식 지도의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항목별로 어떤 단계에서 가르칠 것인지 결정해야 하고, 그것이 학습자 변인과 관련하여 어떻게 기술, 설명되는 것이 효과적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결국 국어 지식 지도는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와 내용 항목에 따라 여러 가지 지도 방법을 적절하게 복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복합을 위해서는 먼저 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 변인에 대하여 면밀히 연구하고, 문법 항목별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비로소 복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